



야외촬영장면



CHUNG JO
Total Wedding & Studio
www.chungjowedding.c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3동64~46, 금정구청 후문앞
TEL. 051-581-6060(代)

<p>代表理事 盧 龍 晚 NOH Young Man E-mail : cinema-1@hanmail.net (국립부산기계공고 12회졸업) H·P : 018-585-6922</p>	<p>전무/촬영감독 박 종 남 PARK Jong Nam E-mail : f64kr@yahoo.co.kr (국립부산기계공고 14회졸업) H·P : 011-835-2588</p>
--	--

扶桑을 바라보며 /동창회 소식

모교 기능대회특활생 격려금 전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도록 방학도 없이 열심히 기능을 연마하고 있는 모교 특활생들의 기능 학상과 체력 보전을 위해 구영석 총동창회장께서 격려금 300만원을 학교에 전달하였다.

현재 특활생의 수는 53명이다.

모교에 그랜드피아노 기증



지난 3월 개관한 모교의 해송문화홀에 구영석 총동창회장이 그랜드 피아노 1대(시가 1천 3백 여 만 원)를 기증하였다.

해송문화홀은 약 400여석 규모의 음향과 조명 등 최신시설을 갖춘 소극장이다.

2002년 총동창회 하계휴양소 운영

총동창회에서는 모교의 협조를 얻어 7월 26일부터 한달동안 기숙사 동관 1층을 개방하여 동문 가족을 위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였다.

휴가기간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 악조건과 짧은 흥보기간에도 불구하고 40여 동문가족이 휴양소를 이용하였다.

동문들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하계휴양소 운영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총동창회에서는 학교와 협의 후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거제 대우동문회 동문가족 등산

지난 5월 26일 통영 미륵산에서 34가족 약 100여명이 참석한 동문가족등산은 한려수도의 절경을 감상하며 등산이 주는 매력을 한껏 만끽한 하루였다.

산행 후에는 미륵사 옆 숲속에서 푸짐한 먹거리로 동문들을 즐겁게 해, 참석한 전 동문들의 배가 미륵산 만큼 솟아 올라 또 한번 산행(?)을 할 뻔한 하루였다.

· 연락처 : 회장 오선택(13회) 011-856-2357

임원연수회 개최

총동창회와 산하동문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한 임원연수회가 8월 17일 하계휴양소에서 열렸다.

동창회 사업과 현황 보고 후 동창회 활성화에 대한 열띤 토론과 견의가 있었으며, 사무국에서

직접 준비한 푸짐한 숯불 바비큐 파티와 함께 선 후배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 같은 선후배(2회 순경태, 26회 이동규)끼리 동문으로서 밤늦도록 얘기를 나누는 모습은 너무나 정겨워 보였다.

결국 흥에 겨웠던 동문 몇 명은 추억을 되살린다며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진출하기도.

대구동문회 체육대회

지난 5월 19일 칠곡 구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진 대구동문가족체육대회에 70여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하여 축구와 족구, 발야구 등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전혀 연락이 되지 않던 동문들이 지나가다 운동장에 친 동문회 현수막을 보고 참석하기도 하는 등 뜻밖의 성과를 얻기도…!

· 연락처 : 회장 김법인(11회) 011-526-6952

양산동문회 가족체육대회

지난 5월 26일 양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동문 가족 70여명이 참석하여 축구와 족구, 줄다리기 등을 하며 동문들간의 우의를 다졌다.

· 연락처 : 회장 이재환(17회) 011-592-0982

웨딩(예식장 공사, 연출기기) 각종 특수효과 불꽃놀이
단체 모임 및 행사 이벤트 전문

파워 웨딩종합상사

대표 김태윤 (16회)

T. 051-631-4466 F. 051-631-4486 H.P 011-598-0796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59-9 대현빌딩 101호

'동문명부를 발간' 동문의 끈을 굳게 이으려 한다

한국구어전집 2002년 10월호 | 편집인: 김기현 | 제작인: 010-845-7771

마창부기회 결성

지난 7월 8일 창원CC에서 마산, 창원지역 동문 30여명이 뜻을 모아 마창부기회를 결성하고, 회장에 심상호(5회)동문, 총무 위호철(8회)동문을 선임하였다.

이로써 동문골퍼들로 구성된 부기회는 1995년 부산에서 탄생한 이후 경인, 양산에 이어 이번에 마창부기회가 결성되므로서 명실공히 전국을 망라하는 골프서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 연락처 : 회장 심상호(5회) 011-862-9859

동문마라톤클럽(機馬會) 결성

지난 5월 12일 개최된 부산하프마라톤대회에 참여했던 동문들이 동문 마라톤 클럽을 결성하였다.

8회 동문들이 주축이 된 이날 모임에서는 클럽 이름을 부산기계공고마라톤클럽을 뜻하는 기회(機馬會)로 정하였다.

또 대회에 참가할 때는 텐트를 치는 등 동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회장 이재천(8회) 011-869-1714

총무 김병문(8회) 016-564-8885

훈련대장 박성규(8회) 016-579-4939

※ 9월 15일 개최되는 부산일보사 주최의 부산바다하프마라톤대회에 약 50여명의 기회(機馬會) 회원이 출전한다.

OB산악회 동악회 창립 20주년 기념행

지난 7월 21일 대외적으로 혁혁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OB산악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충동창회 사무국장과 동문산악회 회장단이 참석하여 축하하였고, 8회산악회(팔우회) 회원들도 자체 산행 후 합류하여 족구경기를 하며 우의를 다졌다.

1982년 박계현(8회), 김수남(8회), 정동라(9회)

동문 등이 발기하여 결성된 OB산악회는 회원들이 에베레스트, 맥킨리 등 세계 명산을 두루 도전, 등정하면서 국내외에 명성을 떨쳤고, 그 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또 산행 후에는 산성막걸리로 기분좋게 목을 죽이고, 족구로 몸을 풀고서야 하산하였다.

· 연락처 : 회장 구윤덕(5회) 011-834-1505



통을 이어받은 모교의 산악부도 각종 등산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 연락처 : 회장 정동라(9회) 016-588-9661

6·13 지방선거 결과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8명의 동문들이 출마하여 선전하였다.

그 중 4명의 동문이 당선되어 공복으로서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 김종률(7회) : 경상남도의회 의원

· 이진복(8회) : 부산시 동래구청장

· 김강일(9회) :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

· 김해연(16회) :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동문산악회 발대식

지난 4월 21일의 제1회 동문가족등산(장산) 후 결성된 동문산악회가 5월 21일(일) 금정산에서 발대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앞으로 매달 1번씩 정기산행(둘째주 일요일)을 갖기로 하고 산을 좋아하는 동문들이 많이 참여



대신종합상사

대표 최영수 (8회)

대한종석초경대리점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750-1번지

전화 052-298-0086/297-5186 휴대폰 011-562-0086

■ 실험실습기자재
■ 자동차기기

인서트팁 · 절삭공구 · 초경공구 · 측정기기
용접기기 · 전동공구 · 에어공구 · 소모자재

『未来』을 바라보며 /동창회 소식

제30회 기능탑제전 개최

- 일시 : 2002. 10. 20(일) 10:00 ~ 17:00
- 장소 : 보교 운동장 및 교정
- 주최 : 총동창회
- 주관 : 8회동기회
- 주요 행사 내용
 - 체육행사-축구, 배구, 승부차기(여자), 줄다리기, 제기차기 등
 - 문화행사-동문 작품전시회, 동문사업체 제품카탈로그전시회, 동문가족 사생대회, 장기자랑 등
 - 기타-주막 운영
- 참가 구분 : 기별, 지역동문회, 직장동문회 별
- ※ 편히 단위 동문회 별로 시전 신청
- 접수 기간 : 2002. 9. 1 ~ 9. 30
- 접수처 : 총동창회 사무국
- ※ 기능탑제전 참가자에게는 기념품(등산조끼)과 식사, 음료 등을 8회 동기회에서 무료 제공함.

동문작품전시회 참가작품 모집

제30회 기능탑제전 행사의 일환으로 동문작품전시회를 개최하니 뜻 있는 동문의 참여를 바랍니다.

- 전시기간 : 2002. 10. 20(일) 09:00 ~ 17:00
- 전시장소 : 혜송문화홀(모교 신축 강당)
- 대상자 : 동문 중 각종 대회 입상 경력자, 개인전 개최 경력자, 해당단체의 회원
- 대상작품 : 그림, 서예, 사진, 공예 등 예술분야
- 문의 : 동창회 사무국
- ※ 출품시 전시 가능한 상태로 작품을 제출할 것

동문사업체 제품카탈로그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제30회 기능탑제전 행사 중 제품카탈로그전시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하시는 동문들이 자사의 제품과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시기간 : 2002. 10. 20(일) 09:00 ~ 17:00
- 전시장소 : 혜송문화홀(모교 신축 강당)
- 대상업체 : 동문사업체 또는 동문 근무업체
- 제출처 : 동창회 사무국
- 수량 : 제한 없음(배포도 가능)
- 제출 : 2002. 10. 15 까지 동창회 사무국

제1회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 부기회에서 주관하고 총동창회가 후원하는 제1회 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기능탑제전 다음날인 10월 21일(월) 에이원CC에서 개최된다. 동문들간의 친목도모와 경기력향상, 동창회 활성화에 협력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동문골파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 날짜 : 2002년 10월 21일(월) 09:00 ~
 - 장소 : 에이원CC
 - 참가자격 : 부산기계공고 동문 및 가족
 - 신청 기간 : 2002. 9. 1 ~ 9. 30
 - 신청 : 각 기 대표
 - 1회 -김천환 011-858-9701
 - 2회 -김광환 011-852-0045
 - 3회 -이판수 011-841-2360
 - 4회 -조승현 018-581-8652
 - 5회 -정기영 011-797-8378
 - 6회 -김정현 011-596-6238
 - 8회 -공경렬 011-869-9960
 - 9회 -김재문 011-832-3131
 - 10회 -김태호 011-597-5847
 - 11회 -백선일 011-862-6466
 - 12회 -이승주 011-398-7852

13회 이하-김종현(13회) 019-580-5582

와인숙성 남겸날

대표 조 정 열(24회)

051-556-6822
011-9507-6822

동래 메가마트 후문



13회 졸업 20주년

모교 방문의 날 기념행사

13회동기회에서는 지난 7월27일 각 지역 대표자 모임을 가지고 졸업 20주년 기념행사를 올10월 19일(토)에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 참석지역 : 경인, 울산, 마창, 거제, 부산
- 부산지역 대표(장세선)를 동기회장으로 선출
- 동기회가 결성되지 않는 지역은 조속한 시일 내로 동기회를 결성하기로 결정
- 미 파악된 동기들의 주소는 지속적으로 파악
- 행사준비 비용이 필요하므로 8월25일까지 각 지역에서는 파악된 동기1/3 인원의 회비를 우선적으로 집행부에 수납하도록 의결
- 1인당 회비를 20만원으로 결정
- 계좌번호 : 우체국 600015-01-011539
- 예금주 : 부산기공 13

"졸업20주년 모교방문의 날 행사에 즈음하여"

-동기회장 장세선(019-216-8544)

"동기 여러분!

우리가 졸업한지도 어언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운 얼굴, 보고싶은 친구들과 은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멋진 만남, 추억할 만한 행사를 만들어 봅시다.

동기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3회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

금년으로 졸업 30주년을 맞는 3회에서 기념행사를 갖고자 준비중이며, 동기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

- 날짜 : 2002. 10. 19(토) - 예정
- 장소 : 미정
- 연락 : 기계과 총무

이석희(051-781-6184, 011-874-6184)

【고침】

동창회보 청간호에 실렸던 광고중 현대자동차
의용판매대리점 대표 이채덕 14기를 13기로
고칩니다.

'동문명부를 발간' 동문의 끈을 굳게 이으려 한다

황해구(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 명부발간위원회 016-845-7979

동창회 집행부만 있고

그 구성원인 동문들이 몇 명이며,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 채 동창회를 활성화 하겠다면 과연 가능할까?

동창회는 강제성을 떠는 조직이 아니며, 자발성에 기초한 조직이다.

개인의 직업이나 사정에 의해 이동이 심한 현대사회에서 동창회와 같은 자생단체들이 그 구성원인 동문들을 100%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그럴수록 동문들에 대한 기초조사의 필요성이 커지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다. 한번 조사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명부 발간사업은 연락이 닿는 모든 동문께 일일이 전화를 걸어, 그 결과를 책으로 발간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

총동창회에서 동문명부를 발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문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22,000여명이나 되는 동문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동창회 활동의 근간을 삼고, 동문들의 정보 요구에 부응하고자 힘이다.

둘째, 명부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동창회 기금을 증대할 수 있다.

셋째, 전국 각지, 다방면에서 활동중인 동문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동기회나 여타 조직의 결성 또는 활성화에 축매가 될 수 있다.

누군가의 "국적은 바꿀 수 있으나 출신학교는 바꿀 수 없다."는 말처럼 부산기계공고 동문은 영원한 동문일 수밖에 없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만큼이나 동창회를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동문이기를 바라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동문명부 발간 사업 안내

동창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동문명부 발간사업이 동문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발간 예정일 : 2002년 10월
- 명부 내용 : 전 동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동문명부 대금 납입방법 안내

동문명부를 구입하실 분은 아래의 구좌로 송금 바랍니다.

- 입금처 : 국민은행 119-01-0362-921 황해구(부산기공동문명부)
- 명부 대금 : 30,000원
- 납부 기한 : 2002. 10. 10까지
- 명부 발송 : 입금 확인 후 소포 또는 택배로 함
- ※ 입금시 본인 이름 뒤에 반드시 졸업기수를 표기할 것.
- ※ 졸업기수 기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입금 사실을 통보바람 -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선 예방
- ※ 명부대금을 자택전화요금에 병과하여 납부하는 방안은 보류 되었으니 온라인 입금 바랍니다.

동문명부에 광고를…!

"광고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둠속에서 처녀에게 윙크를 하는 것과 같다. 당신 자신은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만 남들은 모르기 때문이다."

- S. H. 브리트 -

광고란 직접적인 매출증대 이외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등 현대의 기업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동문명부는 동문들이 곁에 비치해 두고 수시로 펼쳐 보는 훌륭한 광고 매체입니다.

동문명부의 광고는 동문이란 인간적 유대로 인해 매우 빠른 인지 효과가 있으며, 광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왕 이면 동문'이란 심리가 누구에게나 작용한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또 광고를 함으로써 동창회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만족감은 동문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여 줄 것입니다.

광고를 희망하는 동문 또는 업체는 사무국 전화 : 051-742-6746

동창회장 구영석 동문(4회)을 만나다

인터뷰 / 박경식(24회)



동창회 일이라는 게 그렇다.

열심히 해도 뭐 하나 제대로 표시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욕먹기 십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손 놓고 있는 일이 동창회 일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창회, 그것도 회장직을 맡아 동분서주하는 구영석 동문(4회)을 만났다.

Q 동창회 일이라란 잘해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데는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어떤 생각으로 동창회장직을 맡았나?

- 처음에는 자의적인 소신이 없었다. 주위의 추천으로, 잘 되지 않는 동창회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시작했다. 잘 나갈 수 있는 동창회가

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했다.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소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세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동창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생각. 경영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조직적인 동창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차기, 차차기 까지 염두에 두고 전승과 계승으로 장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소신이라기보다 단지 침체된 동창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금까지는 선배들만의 동창회였지만, 이제는 동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동창회로 만들고 싶다.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다. 지금까지 동창회 자체 조직이 유명무실했다. 조직 개편을 통해 각 포지션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Q 부산기계공고 동창회는 밖에서 볼 때 어느 동창회보다도 발전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 동창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 현재 22대 동창회로서 지금 우리 동창회는

차 마시는 백성은 흥한다

- 다산 정약용 -



자연그대로

초록원

차(茶), 판매 컨설팅, 홍보 및 포장을 제작

600-112 부산시 중구 영주2동 321
051-466-2192, 469-2197. 018-568-2192
teamart@shinbiro.com

일일종합기계상사

대형 공작기계 전문

공작기계,프레스 제품,유압프레스 일체 각종 중고기계 판매

대표 임영목(4회)

전화053-356-8760 휴대폰016-508-1134

부산기공 동창회 신(新) 전통 명품 향수 10종 [부산기공 우수상품]

→ 예약 사전예약 010-888-9223

성년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동창회는 명확한 구심점은 찾지 못했다.
현재까지는 기능탑재전을 획일적인 구심점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다원화 체제이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이슈를 만들겠다.

작은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모임들이 동창회와 협력해서 큰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가지고 있는가?

- 내가 다 한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화두를 던지고 차기나 차차기에 이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싶다.

Q 동창회장 재임기간동안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해 나갈 사업은?

- 동문명부 제작과 동창회보 발간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동문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동문들은 각 기수간, 각 동기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돼 있었다.

동창회 부흥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동문들과의 연락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동창회의 존재

를 끊임없이 어필해야 한다.

Q 동창회와는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문이다. 본인의 사업체에 후배는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으며, 선배가 아닌 경영주로서 부산기계공고 출신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3년 전까지는 후배들을 채용 안했다.

왜냐하면 후배들의 사고는 좋았지만 내 자신이 후배를 거두어주고 키워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후배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후배들을 채용했다. 나는 후배들이 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보다는 발전을 거듭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

나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내 회사에서 최소한 5년만 근무해라. 5년 후에는 내가 쫓아보내도 상관없을 정도로 노력해라.”

오너가 되든, 다른 목표를 향해 정진하든 열심히 하리는 뜻이다.

지금 채용하고 있는 후배들은 약 8명쯤. 지금 까지 보아온 부산기계공고 출신들은 다소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다.

나만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직원

들과의 융화나 업무 분담에서 어렵다.

개개인의 역량은 뛰어나다. 그러나 그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에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학교의 동문들은 한 회사에서 단결하지만 우리학교 동문들은 서로 단합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대인관계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Q 끝으로, 동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 지금 우리는 뛰어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역할을 동창회가 하겠다.

사회단체 중 라이온스, 로타리 등을 보면 그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단체를 꾸려간다.

그와 비교할 때 우리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집행부는 이러한 우리 동창회의 가능성 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조금 귀찮더라도 협조해 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장의용품 및 장례 서비스 일체
벌초대행 석물·석축 공사 전문
이장 조경, 납골탑, 납골묘 시공

**대양장의석물**

Tel. 055-391-6423 밀양 초동
HP. 016-830-3595. Fax. 055-391-3593
www.3593.co.kr

상품 포장 인쇄 전문**동림사**

대표 강기봉 (2회)
부산 녹산공단 내
051-831-4281. 011-878-5322

【扶桑을 바라보며 /나도 한마디】

‘동창회’와 ‘동문회’ 용어를 통일합시다

- 강승원(13회) 018-277-4442



이 글은 홈페이지를 본 후 느낀 점 동문회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정리한 글이다.

동창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동창이라는 표현과 동문이라는 표기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동창회-정관에서는 총동창회로 표기-, 동문회사무국, 동창회장, 동문회장 등의 표기가 있고 더 나아가 회보에 있어서는 동창회보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동창이든 동문이든 한가지

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가여이 넘길 수 있는 문제이나 한편으로는 엄청난 실수이고 외부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창과 동문에 대한 국어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동창(同窓) : 동창생(同窓生)의 준말.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 같은 학교나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관계.

동문(同門) : 동문생(同門生)의 준말. 한 스승에게서 같이 배운 제자 또는 같은 학교의 출신자.

결국 동문은 동창인 것이고, 동창은 동문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문이라는 표기가 보다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국어사전적 의미를 떠나 同窓은 窓이 같다는 것으로 교실의 개념이고, 同門은 門이 같다는 것으로 교문의 개념이다.

窓보다 門은 아주 넓은 개념이며,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졸업한

同期同志들에 대하여 첫 번째와 마지막을 줄여 同窓으로 구분하고 그러한 동창이 아닌 동창을 同門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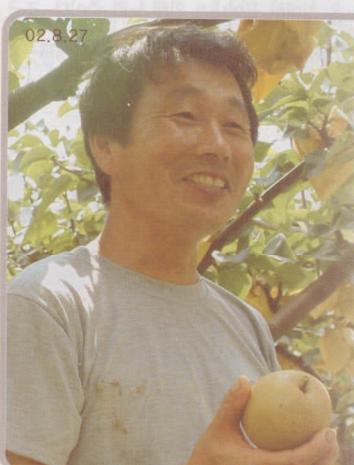
강원도式으로 표현하여 13회 후배가 8회 선배를 동문이라 하지 않고 동창이라고 하였다 간 한마디로 큰일난다.

3학년 7반으로 1982년도에 졸업장을 받은 나에게 있어 3-7 동창생 모임은 반창회이고, 3-7 이외 다른반과의 동창생 모임은 그냥 동창회이고, 1982년도 이외 졸업한 동창생 모임은 동문회인 것이다.

각설하고, 결론은 이렇다.

동창회든 동문회든 한가지로 통일하여 표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혼용표기는 꽉금 잘못이라는 의견이다.

* 동문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언은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한
친환경배

껍질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배 판매
친환경 농법으로 배와 더불어 11년! 울산 환경농산물 배 인증1호
同門; 추석선물용 15kg 1박스당 大30,000. 小25,000
※택배비 포함 가격

황새골과수원
생산자 김영곤(8회) 052-238-3931(야간)
email:goldpearl@yahoo.co.kr 同門 과수원 방문활영
농협계좌 815040-52-137043

부산기공 동창회 신(新)전통을 만들자

-박경식(24회) 011-838-9223



4년 전의 일이다.

졸업을 앞두고 한 회사에 입사시험을 보려갔다. 필기시험을 치르고 3시간을 기다려 면접이 끝난 다음 막 집에 가려고 했을 때 면접관 한 분이 같이 시험을 치러 온 사람 중의 한명을 불렀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집에 가도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따로 부른 것은 입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 후배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후배라고 해서 따로 점수에 가산되는게 아니니 염려 마십시오.”

우리 학교는 후배들에게는 무조건 술을 사야 한다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어떤가 사회나 학교에서 만나는 선배나 후배에게 친절했는가?

혹시 후배가 먼저 선배를 피하고,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를 혹시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대학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가입된 동문회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바로 윗 기수 선배들에게 집단으로 뭉뚱이 짐질을 받은 적이 있다.

입학한 지 한달이 조금 지나서 군기갑기사의 동문회가 열렸고 이후 동문단합이라는 명분으로 – 선배의 말에 의하면 전통이라고 했다 – 구보와 혹독한 기합을 곁들인 이른바 ‘신입생환영회’를 받아야 했다.

자유분방한 대학의 캠퍼스에서 우리 신입생들은 그 자유를 충분히 누려보기도 전에 군기를 잡혀야 했던 것이다. 선배들은 말했다. “기억에 남는다”고.

나와 내 친구 2명은 이후 상당한 반발심을 가졌고 동문회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을 계기로 ‘찍힌’ 우리 세명은 바람이 몹시 불던 저녁, 호출을 받고 학교 뒷산 정자에 집합했다. 그리고 대여섯명의 선배들로부터 ‘뺏다’를 맞아야 했다. 각각 25대.

나는 ‘몇대나 더 맞아야 됩니까?’라고 항명한 탓에 ‘너만 열대 더’ 처분을 받고 35대를 맞았다. 살이 터지고, 피멍은 두달이 넘어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 후 큰 잡음 없이 지나갔지만 동문회에 대한 나쁜 감정은 없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가 왜 맞아야 했는지, 그렇게!

피와 살이 터질 만큼 그들이 나를 때릴 자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 얼차려를 끝내고 동기들끼리의 모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기수가 회장단이 되었을 때 조차 일부에서는 ‘다 추억이 되니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 추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만큼 대단한 것이었던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신입생들에게 동문회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선배들의 따뜻함을 먼저 경험시켜 주는 동문회가 되어 있기 바란다.

나는 부산기계공고

기계조립과 24회 출신으로 내 위로 계시는 23회 까지의 선배분들과 밑으로 있는 10여회의 후배들에게 감히 제안한다.

부산기계공고 동문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자고. 뜻밖의 장소, 의외의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동문들, 선배는 후배들에게 술을 사자. 술이 부담이 된다면 밥을 사자. 아니 그것마저도 힘들다면 선배를 만났다는 징표로 100원, 혹은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500원이라도 주어 보내자.

후배가 그 선배를 생각하면서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고 사회에서 우리 동문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500원은 훨씬 더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고민해 보면 분명 더 좋은 전통끼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 동창회의 전통도 어느새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정말 전통이 있는 죽대 있는 동창회로 사회에 나설 때다.

선배를 만나면 반갑고, 갑자기 찾아온 후배가 좋은 동창회, 좋지 않은가.

내쇼날시스템(주)

용접기 · 용접관련기기 · 용접관련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김 영호(8호)

본사·공장: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117-14
대표전화: 051-305-4030~5, FAX: 051-305-4036
후대폰: 011-863-2588
사상전시장: 부산시 사상구 폐법동 578(부산산업유통상가 15동 136호)
TEL: 051-319-1388, FAX: 051-319-1389, www.nationalsys.co.kr
e-mail: kyh@nationalsys.co.kr

용접봉 · 용접관련자재 · 용접보호장비 판매업체

구계동을 다녀와서

-임석현(17회) 011-9523-0623



아직도 잊지 못하는 여행지가 있다.

내가 그곳을 다녀온 것은 1996년과 1997년 사이
짧은 겨울 휴기를 통하여 다녀 올 수 있었다.

당시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 중이셨고 여름휴가도
다녀오지 못했던 나는 무척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
고 있었다.

당시 내가 읽고 있던 책은 이상문학상 수상집이
마도 1996년도 수상집으로 기억되어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윤대녕의 '천지간'이 당선작이었고 난 그책을 덮
자마자 완도로 향했다.

아마도 내가 그때 여행을 떠났던건 답답한 때문
도 있었지만 그 책에 너무도 아름답게 그려진 완도
의 구계동을 하루 바삐 보고 싶어서 였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난 그 후 지금도 겨울휴가를 자주 떠

나는 편이 되었다.

늦은 오후에 출발을 하여 송광사에서 저녁을 해
결하고 차를 계속 달려 강진부근에 이르러 1박을 하
고 강진에 들른 걸음이 영랑 생가와 다산 정약용의
초당에 들러서 완도에 이르렀을 땐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오래도록 많이 내린 눈은 아니었지만 그건 분명
함박눈이었다.

완도읍내에 들러 부둣가를 둘러보고 서둘러 구
계동에 도착한 나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청한석으로 둘러쌓인 해안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그곳의 모든 바위들은 푸른 옥빛을 띠고 있었다.
그것이 달빛을 받으면 어떨까하는 상상도 해보았지
만 불행히도 그런 행운까지는 얻질 못했다.

윤대녕의 '천지간'은 모 방송국의 TV문화관에
드라마화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한 동행을 통
해서 알 수 있었다.

기왕이면 다행치이라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
던 한석규가 묵었던 밀박집에 수소를 정하고 늦은
저녁을 해결하려 근처 식당으로 갔다.

처음한 횟집의 수족관에는 주인이 잡아 온 듯한
감성돔과 농어 그리고 그리 많지 않은 잡어들이 나
의 입맛을 돋구고 있었다.

자연산 회의 씹는 맛과 주인이 내어 준 유자를 넣
어 담근 김치의 맛은 몇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맛으로 기억되고 있다.

식당주인의 넉넉한 인심 덕에 구계동이 그리도
기억에 남는지도 모르겠다.

완도의 구계동은 정월보름이나 팔월추석이 가장
장관이라고 한다.

정월보름이면 구계동은 눈 속에서 동백이 피고
정월보름달을 통하여 바라보는 청한석이 깔린 해안
은 무어라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민박집 주인
은 말을 해 주었다.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는가?

하얀 눈속에 붉은 동백이 지천으로 피었고 보름
달 아래에 들어난 옥빛의 바다, 거기에 더해지는 넉
넉한 인심 돌아오는 길에는 해님의 땅끝마을을 들
렀었다.

보길도까지 들어가고 싶었으나 부산까지 돌아올
시간을 생각하니 차마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
쉽다. 언젠가 꼭 다시 한번 가겠노라고 다짐을 하면
서도 아직 두번째 여행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

반찬삼아 수족관에서 놓어를 잡아 구워주던 넉넉
한 인심과 지난날의 기억을 만나고 싶다.

이곳을 여행하려면 윤대녕의 '천지간'을 꼭 먼저
읽어보고 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거리가 거리인 만큼 충분한 시간과 조용
한 일행이 함께 한다면 더욱더 기억에 남는 그런 여
행이 되리라 생각되어 추천을 해 본다.

經進鍛造(株) 현대자동차SQ 인증

代表理事 高錫在 (9회)

본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345-1
Tel.055-345-6570-2, Fax.055-345-3875
공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47
Tel.055-346-3570-1, Fax.055-346-3572
HP.011-565-6572

동호수출포장

대표 한웅수 (5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697-3
051-972-3122~3, 011-588-3122

- 진공포장 및 특수포장 전문
- 수출용 산업기계 및 각종 공작기계 포장
- 수출용 플랜트 및 특수중량물 포장

여름의 길목에서

- 김반석(27회) 016-511-1378

여름을 그리다 만 도화지에
6月이 꽃처럼 피었습니다.

투명한 초록빛 잎새 사이로 비쳐보이는
군데군데 흰물감 솜처럼 번진
파르라니 하늘,
상큼한 햇살아래
계단처럼 일어서 있는 파도.



6月이 유화물감처럼 떠있는 연못위에
도화지 한장 살짝 띄워 담아놓은듯
초여름의 풀빛 미소가
여름을 그리다만 도화지에 담겨있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면
6月이 그려진 도화지에
짙푸른 녹색 물감으로
덧칠을 할까 봅니다.

<1994. 6. 29>

동문싸를 소개 지필(紙筆)

지필은 종이와 연필(紙筆)이라는 뜻으로, 1982년 당시 모교에 재학중이던 동문 신수명이 순수시문학을 지향하며 가슴속에 한웅큼씩 묻어두었던 시어들을 모아 발기문을 단, 그 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재학생인 23기까지 자속되고 있으며, 매월 세번째 목요일 모임을 갖고 있다.

연락처: 임석현(17회/지필4기) 011-9523-0623

이상민(29회/지필16기) 011-847-4258

<http://www.gpeel.com>

강원도연합동문회

【자료제공 : 강원도연합동문회】



일당백의 자부심으로

강원도는 부산시 면적의 21.84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그러나 동문 수는 해운대해수욕장에 떨어진 금반지 보다 적다. 오늘 이 시간 강원도 하늘아래 18개 시·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문은 68명이 전부다.

그러나 자칭 소수정예, 일당백이라고 이 68명 동문들 가슴에 살아있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생 자부심은 다른 지역 동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강원도연합동문회 탄생

강원동문들은 거대한 땅을 동서로 나누고 다시 남북으로 나누어 춘천지역, 강릉지역, 속초지역, 동해지역, 관서지역 등 5개의 지역별 모임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중에서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을 꼽으라면 주저함 없이 단연 관서동문회라 할 것이다.

관서동문은 강원남부의 영월·원주와 충북 북부의 청천에 거주하는 동문들인데, 작년도 이맘 때쯤 관서동문 집행부는 보다 확실한 강원도 구

심접과 공동체 형성을 역설하며 「강원도연합동문회」 밤의문을 각 지역으로 돌리고 5개 지역을 순시하면서 「강원도연합동문회」를 출범시켰다.



강원도연합동문회 야유회

강원동문들은 동문 전 기족이 참여하는 연합동문야유회를 매년 개최하여 오고 있다.

금년 야유회는 지난 7월 20일~21일(2일간) 원주에서 개최되었는데, 산이 있고 시냇물이 있고 그 냇물을 이용한 풀장이 있고, 그리고 잔디구장이 마련되어 있는 아담한 농원에서 모였다.

그 야유회에 모인 강원동문 가족은 모두 103명이었으며, 첫날부터 오랜만에 상면한 아낙네들은 그늘에 모여 그들끼리의 정답을 나누느라, 애들은 풀장에 침벙벙은 운동을 하느라, 동문들은 축구장에서 땀 뻘뻘 흘리며 간혹 막걸리로 목을 죽이느라 모두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밤이 되자, 평소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입버릇 삼아왔던 10회들은 절단된 드럼통에 숯불을 넣어 삼겹살을 구워냈고, 폭죽을 신호 삼아

시작된 불놀이 장기자랑에서는 동문들이 찬조한 각종 선물이 전달되기도 하였다.

농원의 광활한 밤이 시간에 묻히고..... 그 다음 날에는 10회+12회가 새벽부터 투망으로 끌어올린 서마니강 물고기로 에너지를 축적 한 다음, 무자격 심판경력 25년인 3회 이기우선 배의 휘슬아래 일명 논두렁 축구시합이 개최되었다.



「1기 이상 선배+자식들」이 한 팀이 되고 「12기 이하 후배+자식들」이 같은 팀이 되어 서로 태도를 외치며 양보 없는 일전을 치렀다.

이따금 8회의 혓발질에 신짝이 하늘높이 치솟았고 오프사이드 같은 규칙은 예당초 없었다.

전·후반전이 끝났을 무렵의 스코어는 4:4. 연장전은 FIFA 규정에 따른 골든골 규정을 도입하였고, 맹렬에서 절 막힌 에너지까지 소진하며 날뛴 이날의 축구경기 결론은 후배팀이 5:4의 스코어로 이겼다. 그런데 이 날 선배팀은 자살골 2골을 포함하여 모두 6골을 넣고도 패하는 이상한 선배상을 연출하였다.



모두의 아쉬움을 뒤로하며 춘천으로 정한 다음 번 야유회를 기약하였다.

“진짜 아방궁을 세워야죠”

중국요리전문점 운영하는 서정희 동문을 찾아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등등 많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그렇지만 정말로 신명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가 하는 것이다.

부산기계공고 동문들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전공'이라는 팔자에 묶여 이공계 계통의 일을 한다. 물론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어떤 일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7회 졸업생 서정희 동문은 그런 의미에서 무척이나 부러운 사람이다.

배관과를 졸업한 서정희 동문이 중국요리전문점(Chinese restaurant)의 대표이자 주방장으로 있다는 것은 의아스럽다.

“기계를 만드는 것이나 요리를 만드는 것이나 크게 디를 바 없습니다. 중국 요리는 힘들죠, 면 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 데요. 배관과 실습을 하면서 힘 쓰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가 중국요리와 인연을 맺은 것은 고등학교 방학 때 우연히 친구와 같이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 한 것이 인연이 되었다.

남들은 다 취업을 나갔을 때 그는 중국집으로 취업했다.

같이 일을 하던 친구는 다른 쪽으로 취업했고 그만이 계속 중국요리와 인연을 맺었다.

“작성이 맞았습니다. 남들이 몇 개월이 걸려서 해내는 기술을 전 두어달 더 빨리 익혔으니까요”

그후 그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공부해 자격증을 따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익힌 기술(?)이라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실력이 늘었다.

당시 자신에게 요리를 가르친 주방장은 아직도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는 벌써 '사장님'이다.

결맞게 '아방궁'이라고 지었다.

얼마전부터 이곳은 알음알음으로 찾아오는 동문들의 회합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진짜 아방궁을 짓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방궁으로 했죠. 정말 좋은 자리에, 괜찮은 아방궁을 지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는 주변의 동중업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한다. 노인과 불우 청소년을 위한 무료 식사 제공이 그것.

“노력도 많이 했지만 운도 따랐다고 봅니다. 이만큼의 저를 있게 해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길은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래도 동문인데, 밥 먹으려 가면 뭣 좀 없을까 싶다.

“알아서 서비스 하겠습니다”라고 자못 기대를 가지게 하는 서정희 동문.

그의 손끝에서 우리나라의 요리를 다시 한번 맛보고 싶다.

<취재/박 경식(24회) 010-838-9223>



“서울의 호텔 주방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 보다는 내 사업을 하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방 일이라는게 그렇거든요. 체계가 군대보다 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 자기 발전하는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에 중국요리전문점(Chinese restaurant)을 열었다.

물론 일반적인 소규모의 중국집이 아니라 정통 중국 요리만을 취급하는 곳이다. 이름도 그에



아방궁 대표 서정희(17회) 051-556-3737



“진짜 아방궁을 세워야죠”

저는 중국 요리기술이 적성에 맞습니다. 전 남들보다 기술을 두어달 더 빨리 익혔으니까요.
아방궁을 찾아주시는 분들과 동문들의 한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덕을 모아
이 자리에 괜찮은 아방궁을 지어서 최고의 요리와 서비스로 고객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Chinese restaurant

阿房宮

대표 서정희(17호) 051-556-3737

롯데백화점 동래점 맞은편(명륜전철역에서 부산전자공고 방향 200m우측)